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신 주님!

오늘 한일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며,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 정부간의 관계가 극도로 험악해져 민간교류와 경제활동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태를 우리는 심히 우려합니다. 이 사태는 한일 양국의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대화와 신뢰 가운데 평화를 이뤄온 양국관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상호적대를 부추기는 이러한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사태는 전시 ‘강제징용노동자’ 보상 문제 등에 대해 한일 양국간에 ‘과거극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일 양국,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의 진정한 평화와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한 역사적인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전노회와 교토교구는 지난 해 교류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류를 시작한 1998년에 교토교구는 스스로의 의지로 <상호교류에 즈음하여 사죄의지표명>을 하였습니다. 그 뜻을 따라 대전노회와 교토교구는 양국간 평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해 왔지만, 그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며, 이로부터 한일의 평화를 함께 기도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자 교회로서 함께 나아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 한일 양국 정부 책임자들이 현재의 대립이 양국에 커다란 손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협력하고, 역사를 직시함으로써 진실을 규명하고, 과거를 극복하기를 기도합니다.

2. 과거 일본이 행한 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를 넘어 연대하고, 한일 시민·그리스도인의 연대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 한일 양국이, 자국 내 배외주의와 대립을 부추기는 언론, 차별적 언동에 의해 분열되지 않고 신실한 대화로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도록 기도합니다.

4. 대전노회와 교토교구가, 한일 양국의 “막힌 담을 허물어”(에베 2:14)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앞으로도 함께 협력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9년 10월 6일 주일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 일본기독교단 교토교구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대전노회 구국 기도회

주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게 하소서.

특별강사 초청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경기도교육감)

"한일갈등과 한반도 위기를 넘어
평화와 번영을 향하여"

일시 : 2019년 10월 6일 (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동남교회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402)

주최 :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통일및사회위원회



1 부 기 도 회

인도 : 김종희 목사
(목사부노회장/동남교회)

목상기도 인 도 자

찬 송 582장(어둔 밤 마음에 잠겨) 다 같 이

한일평화를 위한 공동기도문 한종실 목사
(국제협력선교위원장/한샘교회)

성경봉독 이사야 32:15~17절 인 도 자

¹⁵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¹⁶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
리니 ¹⁷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
과 안전이라.

찬 양 할렐루야 성가대
(온양장로교회)

설 교 “정의와 평화의 일꾼이 되소서!” 이백송 목사
(대전노회장/목양교회)

특별기도 ① 남북간의 평화를 위해 황의국 장로
(장로부노회장/내곡교회)

② 한일간의 평화를 위해 이공복 목사
(통일및사회위원회 서기/벤엘교회)

몸 찬 양 코람데오 위십팀
(동남교회)

2 부 강 연

사회 : 김종수 목사
(통일및사회위원회 위원장/느티나무교회)

강사소개 사 회 자

강 연 이 재 정 (前 통일부장관)

“한일갈등과 한반도 위기를 넘어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광 고 사 회 자

축 도 김진수 목사
(증경대전노회장/반석위에세운교회)

광 고

1. 대전노회 통일및사회위원회 주관 기도회와 강연회에 참여
해 주신 노회의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바쁘신 중에도 강연을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이재정 前통
일부장관(現 경기도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3. 장소를 제공해 주신 동남교회 김종희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드립니다.